

- 중소기업 전용시장에 상장이 가능한 회사는 제 1 시장에 상장을 계획하고 있는 회사 중 유통주식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회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초기 심사요건도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할 것으로 예상됨.
-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중국의 금융시장 진출뿐만 아니라 기업도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중국의 금융시장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- 일본계 회사인 宁波东睦新材料股份有限公司의 상하이 증시 상장 이후 다국적기업을 비롯한 상당수의 외자기업도 중국증시 상장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외국기업의 중국내 상장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.

(문의처 : 베이징무역관 정준규 [joonkyu1905@kotra.or.kr](mailto:joonkyu1905@kotra.or.kr))

## 아시아, 대양주 지역

### ▣ 하루 2 시간 개방되는 방글라데시-네팔 국경무역

- 방글라데시 국경에서 네팔 국경까지 52km 는 인도영역으로 이미 도로가 잘 닦여있어 국경무역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인도의 비협조로 양국간의 국경무역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음.
- 인도는 하루 2 시간 도로를 개방하여 방글라데시와 네팔간 물품운송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나 방글라데시 및 네팔 정부의 요청에 의거 5 월 22 일부터 화물은 9 시부터 5 시까지, 사람은 24 시간 개방시간을 연장할 것으로 합의된 바 있으나 실제적으로 아직 개방하지 않고 있음.
- 방글라데시정부는 방글라데시-네팔-부탄간 교역확대를 위해 이미 인도정부에 도로개방과 인프라지원협력을 촉구하였으며, 방글라데시 정부는 25 만불을 투자, 최북단 Banglabandh 에 육상세관을 설치하여 방글라데시-네팔-부탄과의 교역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.

- 방글라데시는 섬유류, 세라믹, 화장품, 밧데리, 과자류, 그리고 jute 제품들을 국경무역을 통해 네팔에 수출하고 있는데, 방글라데시 정부에서는 네팔과의 교역증진을 위해 네팔로 향하는 물품들에 대해 항만세를 50% 면제해주고 있음.
- 이미 남아시아경제협정(SAPTA)를 통해 방글라데시는 부탄 및 네팔과 국경무역 활성화하기로 합의를 본바 있으며, 인도는 대신 방글라데시 최대항구인 Chittagong 항을 통한 수출이 가능하도록 방글라데시정부에 요청한 바 있음.
- 국경무역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인도, 네팔, 방글라데시 3 국이 공히 세관과 검사소, 은행, 우체국 등의 기본적인 인프라시설을 제공하여야 하나, 현재는 네팔과 방글라데시만이 일부 인프라를 갖추었을 뿐이며, 인도에서는 세관 등의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지 않음.
- 방글라데시정부는 장기적으로 육상운송에 필요한 각종 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Banglabandh 에 10 에이크를 개발 BOT(Build, Operate and Transfer)방식의 인프라를 개발할 예정이며, 민간업체 참여를 유도 적극적으로 네팔 및 부탄과의 국경무역을 지원할 예정이지만 인도정부의 협력 없이는 어떠한 민간사업자도 동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.
- 현재 방글라데시는 네팔에 미화 3 백만불 정도를 연간 수출하는 대신 수입금액은 미화 5 백만불 정도로 미미하며, 주요 교역품목은 섬유류(원사 및 직물)가 주요 수출품목이고, 채소류와 사료, 그리고 수공 stape fibres 등을 주로 수입하고 있음.
- 비록 교역금액이 미미할 지라도 방글라데시 정부는 인도를 견제하기 위하여 네팔, 부탄 등과의 교역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, 또한 올 상반기중 발효될 BIMST-EC 의 새로운 경제권 형성에도 장기적으로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됨.

**<방글라데시의 네팔 및 부탄과의 교역현황>**

(단위 : 미화)

구 분	총교역(억불)		네팔(백만불)		부탄(백만불)	
	수입	수출	수입	수출	수입	수출
1999/2000	60.7	42.3	4.4	1.2	2.1	0.8
2000/2001	69.6	51.3	2.7	2.0	6.0	1.2
2001/2002	63.5	45.2	3.5	2.9	3.9	1.6
2002/2003	71.0	48.1	5.5	3.3	2.7	1.6

(자료원 : Bank of Bangladesh)

(문의처 : 대카무역관 권경무 [kyoungmoo@kotra.or.kr](mailto:kyoungmoo@kotra.or.kr))